

# 식품과 기술의 만남… 외식업계 ‘푸드테크’가 대세

〈식품·food+기술·technology〉

월향, 퓨처레스토랑 ‘레귤러식스’

로봇협동·블록체인 결제공간 조성

CJ푸드빌-LG전자 ‘푸드로봇’ 개발

업무협약 맺고 연내 시범 적용키로

외식기업 디딤, ‘키오스크’ 설치

서비스 질문에 답변… 이용 쉬워

외식업계가 자동화 기기 등 푸드테크(food-tech)를 도입해 편리성과 효율성 잡기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용어로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접목시켜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을 말한다.

푸드테크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규모의 투자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됐다. 세계적으로는 외식업에 푸드테크기술이 생산과 배송에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미항공우주국 나사(NA



디딤 서비스 평가용 키오스크.

안 육그램이 진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로봇, AI 기술이 적용된다.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이력관리와 공간 예약/결제 서비스, 자율주행로봇의 서빙, 로봇이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예일리언로봇) 등이 선보인다.

CJ푸드빌은 LG전자와 ‘푸드 로봇’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양사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푸드 로봇 등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함께 개발하고 연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찾아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외식기업 월향은 축산유통스타트업 육그램과 함께 서울의 대표 먹거리를 모은 퓨처레스토랑 ‘레귤러식스’를 13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레귤러식스는 최근 식음료공간트렌드인 커세션(식음료 위탁운영)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레귤러식스에는 무인화와 로봇생산에 이어 로봇협동의 공간, 블록체인 결제의 공간으로 채워진다. 라운지엑스와 육그램 A.I 애이징룸은 그 동

에 나오는 질문에 따라 만족도를 체크하면 끝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본죽 등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죽을 자동으로 저어주는 기기인 ‘본메이드기’를 선보여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메이드기는 잣죽, 전통 죽, 일반 죽으로 3단계 설정이 가능해 메뉴별로 맞는 버튼을 설정하면 죽이 늘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는 기기다.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기기이기 때문에 어느 화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어 주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무인기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 고객 서비스에 더욱 전념할 수 있어 매장 내 직원과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의 바람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2022년 5대 소비재 350억 달러 수출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 대책회의 “15개 K-프리미엄브랜드 집중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5개 성장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K-프리미엄브랜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도심 소비재 제조·수출 거점

을 구축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

를 2018년 4조8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재 수출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재 수출기업의 인증·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해외인증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경제 확산을 위해 ▲ 기존 산업 혁신 ▲ 신사업 창출 ▲ 삶의 질 제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융복합을 가속화하고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혁신전략은 제조-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와 혁신규제 혁파, 연구개발(R&D) 확대에 중점을 두고 최종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복합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8월 중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방안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가속화하고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혁신전략은 제조-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와 혁신규제 혁파, 연구개발(R&D) 확대에 중점을 두고 최종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 경제활력대책 주요 내용

소비재 수출 활성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 (2018년 277억불)

소비재 수출 5대 유망소비재 제조·수출 우대지원 규모

금융 강화 2018년 4.8조원 → 2018년 8조원

소비재 브랜드 15개 성장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 선정해 집중 지원

브랜드로 육성 도심 소비재 제조·수출 거점 구축

해외인증 지원 소비재 수출기업의 인증 통관 어려움 해소

데스크 설치 통합 지원, 주요국의 인증 규제 정보 제공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플랫폼 경제 확산 타 산업과의 융복합 가속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

플랫폼 경제 융복합 기존 산업 혁신, 신사업 창출, 삶의 질 제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

플랫폼 생태계 고도화 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거래 시스템 구축, 혁신규제 육성 등

서비스업 혁신전략 제조-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혁신규제 혁파, 연구개발(R&D) 확대 중점 종합 전략 마련

자료/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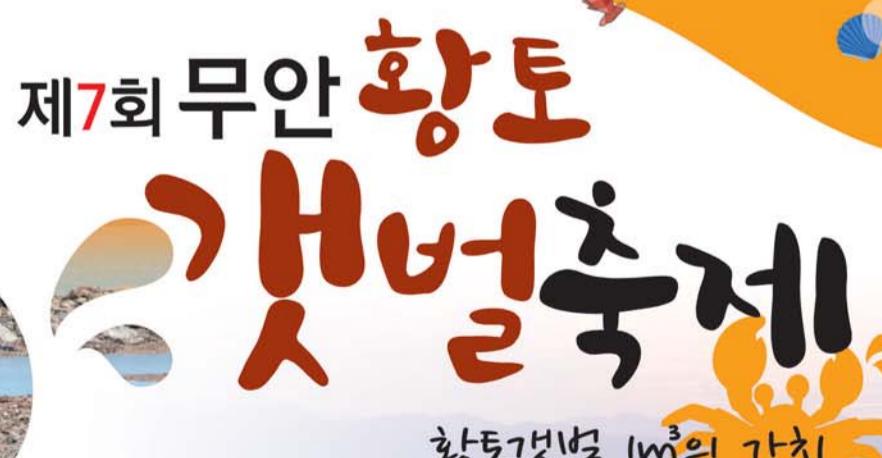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수가 당초 목표였던 15만명을 상당폭 상회해 평균 20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4개월 평균은 23만6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2019. 6. 14.(금) ~ 6. 16.(일)  
해제면 무안황토갓벌랜드 일원  
주최·주관: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